

축 사

(2023년 어선 안전기원 풍어제)

2023. 5. 4.(목) 10:00 / 완도금일수협 물양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한 해 동안의 풍어와 우리군 수산업 종사자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2023년 어선 안전기원 풍어제가 열리게 된 것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성을 다한 제를 준비해 주신 완도어선연합회 박희준 추진위원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로 전합니다.

아울러 앞서 소개드린 내외빈과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재차 거명(擧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생존의 무대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젖줄삼아 생존과 번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 우리의 어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값싼 외국산 수산물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그리고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등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통해 꿈을 이루고 바다에서 부를 일구어 냈던

선현들의 개척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놓여 있는 문제를 어민들과 수산업 관제기관 그리고 행정의 하나가 되어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완도는 바다와 운명공동체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바다를 지키는 일에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촌이 활기에 차고 어민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께서 평안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완도 군의회에서도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어민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선 안전지원 풍어제가 어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만선의 기쁨과 함께 각종 해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염원하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